

2019년 청소년 흡연 및 음주 양상에 대한 질적 연구

김관욱¹ · 김희진^{2*}

¹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문화인류학과, ²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국민건강증진연구소

Qualitative Study on Youth Smoking and Drinking Patterns in 2019

Kwanwook Kim¹, Heejin Kimm^{2*}

¹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College of Integrated Global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²Department of Epidemiology and Health Promotion, Institute for Health Promo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During the years 2016-2019, youth smoking and drinking experience showed a trend of transition from decreasing to increasing, with the following reasons having been identified as triggers: e-cigarettes and heated tobacco products, advertising of tobacco and alcohol products, and diversification of new products.

Methods: Wanting to hear the opinions of the youth,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November 2019 with 3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14-18 years in age with smoking and drinking experience, and divided them into six groups. The researcher transcribed the recorded interviews, read it, coded it using Nvivo 12, and categorized and analyzed similar codes.

Results: Students had little difficulty purchasing either alcohol or cigarettes despite being minors; however, some used illegal methods. Students were skeptical about the effectiveness of school antismoking education, and highlighted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as a starting point for smoking. Finally, although strict regulations were in place against tobacco use in school and at home, drinking was treated leniently in both places, even for girls.

Conclusion: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ng minors' purchase of alcohol and cigarettes and entry into liquor stores must be strengthened, and a new approach to smoking cessation education is needed. Additionally, there is a need to improve awareness regarding the dangers of a culture that is tolerant of drinking.

Key Words: Tobacco smoking; Alcohol; Minors; Tobacco use behavior; Alcohol use behavior; Adolescents

Copyright © 2023 b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접수일 : 2023년 9월 11일
수정일 : 2023년 9월 16일
승인일 : 2023년 9월 26일

*교신저자: 김희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국민건강증진연구소
E-mail: heejink@yuhs.ac

ORCID:
<https://orcid.org/0000-0003-4526-0570>

배 경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현재 흡연을 추이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분명한 감소 추세를 볼 수 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2019년까지 남학생에서는 9.6%, 9.5%, 9.4%, 9.3%로 감소 추세가 둔화되었고, 여학생에서는 2.7%에서 3.1%, 3.7%, 3.8%로 증가했다. 현재 음주율 역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볼 수 있으나, 2016-2018년 동안 전

체 남학생에서 17.2%에서 18.7%로 높아졌고, 여학생에서도 12.5%에서 14.9%로 높아졌다.(1)

연간 흡연, 음주 예방교육 경험률은 각각 2014년 57.5%에서 2018년 72.5%, 2014년 33.1%에서 2018년 42.0%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구매 용이성과 주류구매 용이성은 증감을 반복해 왔으며, 특히 월간 담배광고 노출률은 2015년 67.9%에서 2018년 77.9%로 증가했고,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도 2017년 2.2%에서 2019년 3.2%로 높아졌다.(2,3)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 흡연, 음주도 모두 감소하였는데,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연도별 일반담배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6.0%, 6.0%, 6.2%, 여학생 2.7%, 2.9%, 2.7%로 감소한 채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일반담배 현재 흡연율뿐만 아니라, 일반담배(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세 가지 제품 중 하나라도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의 경우, 2020년부터 3년간 각각 남학생 6.7%, 7.0%, 7.3%, 여학생 2.9%, 3.3%, 3.4%로 연도별로 높아지는 방향성을 보였다. 특히, 2021년 대비 2022년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남 3.7%에서 4.5%, 여 1.9%에서 2.2%로,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남 1.8%에서 3.2%, 여 0.8%에서 1.4%로 늘어났는데, 이는 1년 만에 각각 21.6%, 15.8%, 77.8%, 62.5% 증가한 것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음주율 역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각각 남학생 12.1%, 12.4%, 15.0%, 여학생 9.1%, 8.9%, 10.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4)

이러한 청소년 흡연, 음주 증가 이유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보급, 담배와 주류 제품 광고, 과일주를 비롯한 주류 신제품 다양화와 같은 환경 변화의 영향이 지목되어 왔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감소 추세가 중단되고 증가 방향을 보인 2019년 시점 청소년 흡연과 음주 환경에 대해, 청소년 당사자들의 견해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흡연율, 음주율과 구매 용이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조사로 매년 추이를 알아볼 수 있으나,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영향요인들과 청소년들의 실제 경험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이렇듯 양적 연구로 잘 나타나지 않는 주관적인 경험, 흡연, 음주를 포함한 건강행태, 행동양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방법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5)

이 자료는 비록 코로나19 이전의 면담 조사이나, 위와 같은 신제품과 광고들은 최근에도 청소년 흡연과 음주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2021년 열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담배업계의 신종 담배 마케팅, 홍보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6,7) 백신 도입 이후 질병 위험도가 점차 하락하고, 2023년 5월 5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보건기구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해제되며, 2023년 6월 1일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8) 다시금 청소년 담배제품 사용과 음주가 증가 경향을 보이는 현시점에서,(4) 사용율이 증가하는 시점의 시사점을 찾아 청소년 흡연, 음주 예방을 위해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 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흡연 및 음주 및 음주 경험이 있는 서울 및 수도권(경기, 인천) 거주 만 14세-18세 남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총 35명)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온라인 패널 사이트(마크로 밀 엠브레인)에 가입한 자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들이다. 선정기준은 최근 30일 이내 일반담배(궐련) 또는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고, 1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이며, 제외 기준은 본인 및 동거 가족이 담배 및 음주 업계에 이해관계나 관련이 있는 자들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를 받았으며, 연세대학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과제승인번호 Y-2019-0154).

2. 자료수집 방법

FGI 조사는 2019년 11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성별, 중학생, 고등학생 저학년(1, 2학년), 고등학생 고학년(3학년)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면접은 연구진 논의를 통해 반(半)구조화된 FGI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이에 따라 1시간 30분 동안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좌담회실에서 진행하였으며, FGI 사회자는 본 연구의 연구진 2인이 직접 수행하였다. 면담 순서는 아이스브레이킹(Ice breaking), 흡연 관련 경험 토론, 담배구매 방법, 담배 사용행태, 담배에 대한 인식, 음주 관련 경험 토론, 기타 토론 및 마무리 순이었다. 사회자는 기본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시작하여 참가자들의 상호 답변 속에서 필요 시 후속 질문을 통해 좀 더 상세한 답변 기회를 형성하였다.

3. FGI 분석 방법

FGI 분석 방법은 녹음된 인터뷰 과정을 필사하고, 이를 질적 연구 프로그램인 Nvivo ver. 12 (QSR International, Doncaster,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9) 연구자는 Nvivo 프로그램을 통해 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기초적인 코드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유사한 코드끼리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장 빈도가 높은 유의미한 주제를 추출하였다.(10)

결 과

총 35명(남학생 19명, 여학생 16명) 중 중학생(3학년)은 남자 5명 및 여자 4명, 고등학교 저학년(1, 2학년)은 남자 7명, 여자 6명, 고등학교 고학년(3학년)은 남자 7명 및 여자 6명이 참가하였다. 거주지는 서울 25명, 수원 2명, 성남 2명, 남양주 1명, 그 외 부천 등 경기도 내 도시 거주 5명이었다. 매일 흡연이 절반 정도였고, 매일 또는 월 10일-29일 흡연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이하 흡연자는 적었다. 최근 30일간 한두 모금이라도 사용한 담배 제품은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두 가지로 답한 경우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담배만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총 흡연기간은 6개월에서 5년 사이였다.

FGI 녹취록을 분석하여 참가자 35명이 집단면접 과정에서 발연한 내용 전체를 Nvivo 12로 의미 단위로 코드를 생성한 결과 총 1,166개가 형성되었다. 이중 코드 빈도가 가장 높은 순으로 볼 때 ‘흡연시작이유-친구’(40개), ‘담배구매-타인(친구 혹은 선배)’(36개), ‘흡연시작시기(중학교)’(28개), ‘흡연 시작 후 지속이유(스트레스)’(24개), ‘선호하는 술 종류(소주)’(24개), ‘실제 만취 후 이상 경험’(24개), ‘담배구매-불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

(신분증 확인 안 함)’(23개), ‘흡연이 초래한 건강상 이상(약간 있다)’(23개), ‘연초 장점(특유의 맛)’(20개), ‘전자담배 단점(맛 냄새 타격감 나쁘다)’(21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고등학생의 흡연 경험과 관련해서, 특히, 시작 동기와 이후 구매에 있어 ‘친구’를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흡연 시작과 관련해서는 중학교를, 흡연 지속의 이유로는 스트레스를 지목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어서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어렵지 않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또한, 흡연과 음주 행위가 건강상에 이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험 및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비교적 높은 빈도로 언급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흡연 시작 후 지속 이유(습관(19개), 친구(19개))’, ‘불법적으로 구매-불법 위조’(19개), ‘담배구매-편의점’(17개), ‘부모 사실 인지-알고 있지만 넘어감’(16개), ‘흡연에 대한 학생 규제 해제’(16개)도 자주 언급되었다. 여기에서도 흡연 지속의 이유 중 친구가 자주 언급되었음은 물론, 담배 구매 시 신분증 불법 위조를 통해 주로 편의점 등에서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학생 자녀들의 흡연 사실에 대해 부모들이 종종 알면서 넘어간다는 점과 미성년 학생 흡연, 음주 규제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높은 빈도로 나온 점도 유의미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앞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 코드들 중 아래와 같은 코드들의 그룹별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Nvivo 12를 이용하여 각 코드들에 대한 ‘커버리지’ 즉 해당 그룹의 전체 녹취 내용(면적) 중 특정 코드가 차지하는 범위(면적)의 백분율을 표시한 것으로, 학년별, 남녀별 경향을 추측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통계적 수치가 아니며, 그룹 안에서 어떤

Table 1. Coverage of each code in the group discussion on focus group interview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by Nvivo 12 (n = 35).

Coverage (%)	Reason to start tobacco-friends	Purchase tobacco-friends	Time to start tobacco-middle school	Purchase tobacco-no ID card verification	Illegal counterfeit	Convenience store	Ignored by parents	Lifting student restrictions
Middle school students								
Boys	1.21	2.7	0.83	0.24	0.28	0.21	1.16	1.05
Girls	1.18	0.45	3.33	0.81	1.86	0.23	0.81	0
High school students (grade 1, 2)								
Boys	1.57	0.6	0.86	0.70	0.34	0.24	1.07	4.74
Girls	3.27	1.81	0.45	0.53	1.10	0.82	0	0
High school students (grade 3)								
Boys	1.14	4.14	1.20	0.59	0.97	0.18	1.04	0.25
Girls	0.36	0.81	0.33	1.68	2.44	0.24	0.71	2.05

소제가 면접 중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참고자료이다. 단, 표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서 특별히 높은 커버리지를 보이는 수치들의 경우 특정 참여자 몇몇이 상대적으로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결과들이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한 참가자의 대표적 진술 내용 및 그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흡연 관련 경험: 친구와 호기심에서 스트레스 해소로

흡연 시작의 계기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친구'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흡연에 호기심이 생기고 담배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대다수의 경우 친구에 의해서였다.

(중3 남) 중2 5월 달쯤에 친구가 줘서 피워봤는데 맛있고 연탄 먹는 것 같아서 느낌이 싫어 가지고 잘 안 피웠거든요. 중2 2학기 가을 정도 되니까 애들이 다 피워 가지고 혼자서 빨쫄한 거예요. 가을이 아니라 11월 그쯤에 노는 애들이 놀다 보면 담배 피우러 가자 하면 저 혼자 안 피우고 서있으니까 빨쫄해 가지고 저도 피우다 보니까 괜찮아져 가지고

(고2 여) 친한 애들이 피워서 밥 먹으러 갈 때 안 피우면 피우는 애들만 나와 가지고 다 따로 나와 가지고 같이 옆에 있다가 피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새로운 종류의 담배에 대한 첫 경험도 광고 등에 대한 노출보다는 친구의 사용에 대한 호기심 혹은 권유 등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중3 남) (사회자) 다른 분들은 새 담배가 나온 거 어떻게 알아요? (학생) 친구가 얘기하다가 알려주고

(중3 여) 새로 나왔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사회자)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새로 나왔는데 괜찮다? (학생) 친구한테.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친구의 권유, 압박 때문에 흡연을 시작하기보다는 호기심에 의한 자발적 선택의지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자) 맨 처음에 중학교 때도 있고 고등학교 때도 있고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친구나 누가 권유했다고 다 하셨거든

요. 그게 완전히 그래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건지 내가 담배 안 피우면 친구들하고 같이 있기 힘들어서 그러신 건지 누가 억지로 시킨 건지 중에서 어느 쪽이신지 궁금하네요. 말씀해주세요

(고3 남) A: 자발적으로 궁금해서. B: 저도 자발적으로. C: 자발적으로. D: 자발적으로. E: 자발적으로. F: 자발적으로

흡연에 대한 첫 경험 이후 완전히 흡연자로 접어드는 큰 이유로 친구와 습관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3 남) 피우면 한 시간 동안 생각이 안 나요. 스트레스 같은 거.

(중3 여) 끊으려고 해도 힘든데 저는 호기심도 물론 있었지만 고민 있고 이럴 때 친구가 담배 피워서 피운 거라서 저는 고민 있고 그런 애들이 확실히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의지하게 되는 게 있어요

(고2 여) (사회자)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후에 계속 하게 되었나? (학생) 스트레스. 그때 왕따를 많이 당해서.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학업이나 그런 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했어요

(고3 남)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대학교를 가야 한다라는 스트레스 심해져 가지고 중학교 때는 안 심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처음 보는 애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개네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 받았죠. 그거 때문에 시작했어요

중학교 그룹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라는 특정 시기가 흡연의 시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간임을 강조하였다.

(중3 여) A: 1학년 때는 거의 없어요. 특출나게 싸수가 노란 애들이 있는데. 중2 여름 방학이 피크예요. 그때 시작하는 애들이 많아져요

B: 중3이 되면 피우는 사람이 많은데 중3이랑 친한 중2 애들이 조금 조금씩 시작하면서 여름 방학 되면 완전

A: 중학교 1학년은 시험 이런 것도 없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도 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노력 한 만큼 즐겨야지 노력 안 했어도 즐겨야지. 여름 방학이 돼요.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 처음에 이래요. 담배 피우면 안 돼.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너도 한번 해 볼래 이러면 그래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학생들의 경우 새로 출시되는 신종담배들(액상형, 껍련형 전자담배)보다 기존의 일반담배를 보다 선호했다. 특히, 다양한 제품들 중 멘톨, 캡슐과 같은 가향담배들이 자주 언급되었다. 학생들에게 전자담배들은 이용 및 관리에 불편하고 비싸며 일반담배보다 맛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호되지 않았다.

(중3 여) 제일 최근에 산 거는 에쎬 히말라야. 새로 나왔는데 친구가 괜찮다고 그래서. (어떤가요?) 맛이 달아요. 풍선껌. 니코틴도 1인가 적어서.

(중3 여) (어떤 제품 파우나요?) 레종 보라색깔 프렌치 블랙 그거 아니면 휘바. (휘바는 어떤 거요?) 핀란드산 휘바. 휘바가 핀란드에서 나오는 나무인가 해 가지고 약간 시원한 맛있다고 프렌치 블랙이랑 비슷해요 달고 그리고 보합 쿠바. 이것도 시원한 멘솔 맛.

(고3 남) (사회자) 여러 가지를 바꿔 가면서 파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학생) 맛이죠. (사회자) 새로운 맛 있는 맛을 발견하면 이동하시고요? (학생) 네.

(고3 남) A: 지금은 카멜 필터라는 연초 담배 파우고 있고 다른 거 전자담배나 그런 거는 코일도 갈아 줘야 되고 유지비도 들고 충전해야 되어서 귀찮아서 버렸어요. 맛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귀찮고 B: 저도 똑같은 이유로 팔았어요.

(고3 여) 아이코스도 어느 정도 써 봤는데 이게 연초랑 타격감 그제 전혀 안 느껴지고 그래서 어차피 못 끊겠구나 싶어서. 그리고 액상은 오히려 타격감이 있는데 뭔가 충족이 안 되는.

단, 고3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몰래 흡연을 하기 위한 용도로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관련해서 전자담배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

(고3 남) A: 아이코스는 화장실에서 하고 연초는 나가서 피웁니다.

B: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액상형 껍련형 다 합해서 우리 학교에서 흡연하는 애들이 많아진 것 같다?) 많아진 거 같아요.

C: (액상을 쓰다가 안 쓴다고 하시는데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 있을 때.

2) 담배 구매 방법: 속이고 위조하기 쉬운 미성년 신분

이번 집단면접에서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미성년 학생들이 담배를 구매하는 데 있어 전혀 어려움이 없다

는 점이었다. 다수가 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 절차 없이 구입하거나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적으로 위조 혹은 획득한 신분증을 통해 어렵지 않게 구매했다. 또한 친구들과 선배들을 통해서도 담배를 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성별과 학년과 상관없이 유사했다. 여러 가지 신분증 위조 방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특히 페이스북을 이용한 진짜 성인 신분증 불법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중학생의 경우 담배를 흡치는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중3 여) 웬만하면 사러 갈 때는 화장을 지워서 생얼로 오히려 화장하는 것보다 생얼이 더 좋아요. 화장을 진하게 했으면 준비를 했다라는 뜻인데 지갑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학생들 화장이 티나니까. 복장도 잠옷 이런 거. 아니면 보통 애들끼리 공유되어 있는 거 저 알바는 안 물어 본다 이 시간대에 저 편의점은 된다.

(고1 남) (편의점에서 구매하시나요? 신분증 검사 없이? 다들 동의하시나요?) 다 그래요.

(고2 여) (청소년들이 구매하는 가장 많이 구매하는 순위를 정하면 1순위가 어디예요?) 편의점.

(고1 남) 그냥 가짜. (직접 만들었어요?) 친구한테 빌려서. 파는 친구가 있는데, 민증을 파요 숫자들.

(고2 여) (민증을 보여주세요?) 네 (본인 거?) 네. (본인 거 보여 주면?) 연생을 긁어서. 스티커로 붙이면. (사회자: 감쪽 같아요?) 완전 가까이 불빛에 대보지 않는 이상은 지갑 채로 주면. 그리고 임시 신분증 애들이 위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3 남) A: 뭐 사러 갔는데 신분증 보여 달라고 집앞에서 나와서 안 들고 왔다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가 있어요 B: 저도 종이 신분증 친구들이 파는 애들이 있어서 사 가지고 와서. C: 저도 똑같은.

(고3 여) A: 다른 성인증을 산 애도 있고 그냥 얼굴이 삭아서. (성인증을 산다는 게 위조한 거를 산다는 거예요?) 실제 나이 있는 사람. (얼굴은 비슷하게 해서 지갑에 넣어서 년도만 딱 보여 주고) 네.

B: 제가 직접 사는데 저는 아는 언니한테 민증을 빌렸어요. (얼굴이 비슷해서?) 얼굴이 달라요. (안 걸려요?) 네.

C: 민증을 조작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친구 중에 바늘로 00부터 성인이나 1자를 긁은 다음에 스티커 있던데 그거를 떼어 가지고 손으로 긁으면 그게 그대로 0이 붙어요 그리고 위에 투명 시트지 하나 붙이면.

D: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으세요?) 사진 들고 가요 제 거를 찍어 가지고 포토샵으로 붙였어요. (그걸로 하면 믿어요?) 네. 얼굴이 제 얼굴이라서 본인 카드 검사 하는 데도 있어요 이름 하고

(중3 남) A: 친구가 보려 가지고 담배를 훔쳐 가지고 (훔친 거를 뭐라고 해요?) 뿌리다.

B: 애들이랑 호기심에 같이 훔쳤어요. (어디서 훔쳤나요?) 할아버지들이 하는 가게. 낡아 보이는데. (이게 흔히 하는 방법이에요?) 네.

(중3 여) 담배 훔친 애들도 있어요. 편의점에 없는 거 있잖아요. 펄시 캔 없다고 그러면 일부러 알바가 새로운 알바 같다고 그러면 펄시 캔 없어요 그러면 나와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고3 남) 구멍가게 같은 데서 훔치는 친구가 많았어요

3) 흡연 장소: 학교 밖 자유로운 흡연

학생들은 흡연 장소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크게 없어 보였다. 주로 시선이 드문 골목길, 건물 옥상, 주차장, 건물 엘리베이터, 길거리에서 피웠다. 피시방 흡연실과 노래방을 방문했을 때 자유롭게 흡연한다고 했다. 몇몇 학생의 경우에만 집 베란다 혹은 방 안에서 부모님이 자거나 없을 때 시도했지만 주로 집 밖에서 흡연하였다.

(중3 남) 근처 아무 골목에 들어가서. (그래도 사람 시선 없는데 가서 피워요?) 큰 길가에서는 잘 안 피워요. (골목 들어가서?) 네.

(고1 남) 학교 안에서 안 피워요. (주로 어디서 피우세요?) 동네에서 피우죠. 동네가 제일 안전해요. (동네 어디?) 솔직히 동네에서는 걸어 다니면서.

(고2 여) A: 사람들이 담배 피우게 생긴 곳이 있어요 골목 같은 데.

B: (주로 어디서 피우세요?) 골목. 아니면 노래방.

C: 사복 입었을 때 길거리에서 해요. (특별히 남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셨고?) 교복만 아니면.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굳이 흡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학교 내에서는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율이 좀 더 엄격해 보였다. 한편, 앞서 소개했듯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에는 냄새가 적은 전자담배 등을 사용하여 학교 안에서도 흡연을 시도하였다.

(고2 남) (학교 안에서는 안 피우고요?) 네. 시스템이 있어요 니코틴 감지되는 기계가 있어요. (학교 안에 화장실 이런 데에?) 화장실 변기에. 방충이 나가요 피우지 말라고 갑자기.

(고1 여) A: (학교에서 줄 많이 써요?) 학교에서는 못 피워요 규정이 너무 세서.

(학교는 절대 안 피운다?) A: 안 돼요. B: 안 피워요.

(고3 여) A: 징계 맞아요. B: 저희 학교는 이미지가 좀 있어서 학교가 예체능 쪽이라서. (흡연해도 된다는 분위기에요?) 아뇨 안 된다고. (철저하게 피워도 안 피운 걸로 숨기고 그런 거죠?) 네. (다들 그러신 거예요? 알면 되게 혼나고 하니까?) C: 징계 있던데. 보통 고3 들은 봐주는데 고1이나 2는 퇴학 투아웃 하면 퇴학이에요. (담배 두 번 걸리면 퇴학이에요?) 바로 퇴학이에요.

4) 흡연의 해로움 및 금연교육 인식: 알지만 듣지 않는 이야기

학생들은 흡연으로 인해 가래 증가, 폐활량 감소와 같은 약간의 신체적 영향이 있었다고 하며, 장기간 흡연할 경우 건강 문제와 중독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편이었고, 이로 인해 금연에 대한 계획도 일부는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흡연 학생들이 흡연의 해로움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거나 그 사실을 무시할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3 여) 솔직히 몸에 안 좋은 거 다들 알면서 피우는 거니까.

(고2 남) A: 발기 부전 될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담배 피운 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세요?) A: 네. B: 네. (그게 얼마나 피우면 나한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C: 3, 40대. A: 50대 넘어서. B: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다. D: 저도 내일. E: 30대 후반.

(고3 여) A: 20대 지나면. (몸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 끊을 생각이 있으세요?) 네.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B: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끊을 생각이예요. 학교 다니는데 대학 가면 성인 되면 더 피운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니깐. 학생들이 피우는데 건강 상의 문제가. 제가 피우기는 하지만 안 좋은 거를 알고 있고 줄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장기 때 안 좋다고 들어서.

한편,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각종 금연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은 좀 더 실효성 있는 금연교육(특히,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중3 남) A: (학교에서 금연교육 받아봤어요?) 네. B: (도움이 돼요?) 아뇨. C: (왜 도움이 안 돼요?) D: 재미가 없어요. A: 안 들었어요. 교실에서 영상 같은 거 보여 주는데 다 자고 (선생님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왔는데 알아서 보라고. D: 어차피 보여줘도 피울 사람은 다 피우니까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거 하고

(중3 여) A: (금연교육도 하잖아요. 도움이 되나요?) 없어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예산 낭비. B: 어차피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어차피 그거 해줘도 피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요

(중3 여) (중2 여름 방학을 타겟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겠네요?) 짝을 끊어야죠.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인이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을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이러면 안 돼 하면. 그리고 중1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 하는 게 그나마. 차라리 중2, 중3 때 돈을 끌어다가 중1 때 몰빵하고 진짜 주변에 갑자기 여기에 구멍 뚫려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한편, 자녀들의 흡연 사실을 알았을 때 크게 혼을 내는 부모님들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경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고 이야기하였다.

(중3 남) A: 냄새 때문에 집에서 피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피우고 들어왔는데 냄새 때문에 엄마 아빠 둘 다 대충 아는데 별로 엄청 뭐라 하지 않아요. (크게 터치 하시지 않으시구나?) 그냥 끊으라고. B: (부모님은 아세요?) 네. (특별히 얘기 안 하세요?) 끊으라고 하세요. 피우고 오면 다음부터 피우지 말라고.

(중3 여) A (흡연자라는 사실을 아세요?) 엄마는. (특별히 터치 안 하세요?) 아빠한테만 걸리지 말라고.

(고2 남) A: (어머니가 알고 계세요 흡연하는 거를?) 네. (가족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아세요. 중학교 2학년 때 걸려서 뭐라고 하셨는데 중학교 3학년 말쯤 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다른 데까지 가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B: (아는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줄이라고 하면서 그러시던데요. C: (특별하게 크게 터치 안 해요?) 집 들어갈 때 냄새 안 나게. D: (집에 올 때 냄새는 풍기지 말라?) 냄새는 풍기지 말고 집에서 피우지 말고. C: 항상 보이지 않은 곳에서.

(고3 남) A: (다른 분은 아세요?) 네. (부모님 반응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엄청 화내셨는데 지금은 체념하신 거 같아요. B: 위에 있는 형이 엄청 혼났었는데 그 형이 뭐라고 해도 안 듣는

거 보고 딱히 뭐라고 안 하세요. C: 부모님도 제 나이에 때 피우셨다고 내 새끼 맞구나 하세요.

(고3 여) 아빠는 솔직히 엄마한테 오히려 들켰을 때 왜 들켰냐고 뭐 할 정도로.

참여 학생들은 흡연 및 음주에 대한 가격에 확실히 민감하고, 그래서 담뱃값 상승에 대해 비난하지만, 그것이 금연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경향이었다.

(고2 남) A: (2015년도에 담뱃값 2천원 올랐잖아요. 그거는 타격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정부 욕 하면서. (그거 때문에 줄이거나 끊어나?) B: 줄었어요. C: 아니요. (그냥 상관 없었어요?) A: 욕만 했죠. D: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C: 아직도 짜증나요.

(고3 여) A: (담배 가격이 2015년도에 올라갔어요. 그때 겪어 보셨어요?) 네. B: (어땠어요? 금연에 대한 욕구가 생겼나요?) 아뇨. 올랐구나 드럽게 비싸네. (그 정도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게 적응이 되었어요. A: (그거를 느껴보신분 있으세요?) 담배 사는 거는 똑같이 나가고 있고 전체 비용만 제가 써야 되는 비용만 줄었어요. A: (만원으로 해도 피울 거예요?) 네. B: 네. C: 좀 줄일 것 같아요. 끊지는 않고.

한편, 흡연에 대한 설문 조사 시 학생들은 대부분 흡연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익명성에 대한 불신이었다.

(중3 여) A: (학교에서 설문지로 익명이니까 솔직하게 적어하면 흡연자로 체크 하실 거예요?) 아뇨. (왜 안 해요?) 굳이 흡연자로 체크해서 득 될 게 없잖아요. (익명인데? 국가를 위해서 체크 해주면 안 돼요?) 별로. B: (도움 될 게 없어서?) 네. C: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익명이라 해도 선생님이나 알 까봐?) 그거는 혹시 모르니까.

(고1 남) B: (학생들은 당연히 안 피우는 걸로 체크 해야지, 정답이 그거이니까 그걸로 체크 하시는 거예요?) 학교 같은 데서 할 때 반에서 다 공부하는 애들인데 담배 피운다고 하면 관상이 보이잖아요. 애는 담배 피울 것 같다 그때부터 선생님한테 찍히는 거죠. A: (학교에서 흡연자인 거 몰라요? 다들 학교에서 본인 이 흡연자인 거 친구들은 알죠?) 네. B: 친구는 알죠. (선생님들은?) A: 알아요. C: (설문지 체크할 때 왜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쌤들이 볼까봐 쫓겨서 아닌가요. D: 들킬까봐.

5) 음주 관련 경험: 제재 없이 자유롭게 관대한 음주, 이어지는 흡연

음주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친구와 호기심으로 처음 시도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후 분위기 등을 장점으로 생각하며 음주를 이어갔다. 학생들은 직간접적으로 만취 이후 겪었던 원치 않은 경험 즉 기억상실, 외상, 기물파괴, 이성과 부적절한 행동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중3 여) A: (술을 마시는 가장 큰 이유 하나만 꼽으라 하면?)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싶어서 취할 때까지 마셨는데 이게 계속 마시다 보니까 그냥 마시고 싶어요. B: (술의 장점 하나만 꼽으라 하면?) 기분이 좋아요. 취한 친구 보는 것도 재미있고 단점보다 장점이 큰 게. 또 장점이 일단 술들은 다 싸잖아요.싼 값으로 확확 빨리 마시면 진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고1 남) 중3 때 너무 크게 일 벌려서. 필름 끊겨서. 그때 애들 이랑 마시다 소주 여섯 병인가 혼자서 마시고 필름 끊겨서 중간에는 기억 안 나는데 노래 부르다가 눈 뜨니까 집이었는데 구급차 타고 갔네요. 그때 이후로 미안해서 안 들켜려고

(중3 여) A: 여자 애들끼리만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남자 애들이랑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취하면 나쁜 놈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친구 중에?) 선배나. B: 남자 들까지 껴서 실내에서 마실 때는 항상 조심하죠. 최대한 안 취하려고 C: (그런 생각이나 경험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 듣거나 한 적은 없어요?) (중3 여) : 많아요

음주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학생들이 성별과 학년에 상관없이 술을 구매하여 마시거나 식당 등에 출입하여 마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신분증을 검사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으며, 검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응책들 즉 위조 신분증, 구매한 성인신분증, 단골 가게 이용, 친구 혹은 선배에 의해 처리, 절도와 같은 방법들이 있어, 담배 구매시 어려움이 없었던 점과 일치했다. 음주 장소로 출입, 이용에 학생에게 제한이 적고, 저렴한 노래방을 자주 이용하며, 주류판매식당, 친구집, 공원, 편의점, 포장마차, 무인텔, 모텔에서도 술을 마시곤 하였다.

(중3 남) A: (술은 어디서 구매해요?) 편의점. B: (어떻게 사요 민증 검사 할 텐데요?) 담배 사는 데서 사요. C: (푼린 곳에서?)

똑같이 담배랑

(고2 여) A: (술 살 때는 어떻게 사요?) 달라고 하고 사요. (민증 검사 없이?) 네. B: 친구가 사요. (그 친구는 어떻게?) 노안이라서.

(중3 여) 가끔 가다가 흡친다. (어디서 흡쳐요?) 구멍가게 같은 데. 흡치기 전에 CCTV 위치나 테이블 위치를 알아봐요. 누가 뜨는지 안 뜨는지. (쉬워요?) 여러 명에서 하면 쉬워요. 막으면서. (왜 흡칠까요?) 쉽게 못 사는 이유도 있고 여건이 안 되어서 못 사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안 풀리잖아요. 그때 슬쩍 하는 거죠. (흔한 방법이에요?) 제 주변에서는.

(중3 여) A: (술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같이 간 친구가 나이를 속이고 갔었는데 알바생이 이 친구가 자기랑 동갑인 줄 알고 서로 번호 교환을 한 거예요. 연락 하면서 동갑인 줄 믿고 있는 거죠. 친구니까 데려갔어요. B: (어떻게 가셨어요?) 잘 풀리는 데가 그런 데로. (호프집 특별히 민증 검사 안 하고 시켜서 먹을 수가 있는데?) 네.

(고1 남) A: (술은 어디서?) 원래는 동네 식당 가서. (어떻게 시켜요?) 달라고 하니 주던데요. (검사 안 해요?) 네. B: (성인 검증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네요?) 좋죠. C: 살기 편해요.

(고1 남) A: (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장소는?) 노래방. B: (1순위 노래방? 사갔고 가서?) 네. 아니면 거기 안에서 파는 거. (팔아줘요?) 가라오케는 팔아요. (어떤 노래방? 코인 노래방?) 아노 시간제 가서. (흔해요 청소년들 노래방 이용하는 게?) 흔하기는 해요. C: (노래방 가서?) 서비스 계속 주니까. B: 한 시간을 넣어 놔도 2시간 3시간 동안 하니까.

(고2 여) A: 주말에 그냥 놀려고 모텔 가서 찾거나. (모텔 들어 가거나 뭐 할 때도 다 검사하지 않나요?) 무인텔 가요. B: 여자끼리 들어가면 검사 안 해요. A: 동성이면 검사 안 해요. B: (원래 동성은 검사 안 해요?) 학생들은 하는데도 있는데 거의 안 해요. 사람이 있어도 여자끼리 가면 놀러 왔구나.

또 다른 특이점은 음주에 대해서 선생님과 부모님 대부분 관대하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여학생의 경우도 해당됐다. 특히, 학교에서 엄격하게 흡연을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에 비해 음주의 경우는 관대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중3 남) (술 냄새 나는데 특별히 터치 안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몰랐던 건지 터치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 (터치하는 거 본 적도 없어요 다른 학생이라도?) 네. (이게 학

교에서 담배 파우더가 적발되는 거랑 술 먹은 게 들킨 거랑 다 똑 같이 취급 당해요 담배가 더 심해요? 담배는 걸리면 엄청 선도가거나 그런데 술을 걸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고1 여) A: (다음 날 숙취 때문에 학교에서 냄새도 나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선생님이 또 먹고 왔냐고 장난치시고 B: 눈 감아주세요. 알면서 다 모르는 척 해요. (흡연은 뭐라고 하시겠지요?) 네.

(고3 여) A: (냄새 나잖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분께서 눈치 채서 가지고 애들이 알코올 쏘아서 그렇다고 손 세정제라고 뽀이 그래 하면서 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학교에서 음주 한 이후에 냄새가 나거나 그런 면에서 특별하게 터치하지 않아요? 흡연만큼 터치는 안 해요?) 술 냄새는 별로 터치 안 하세요 B: 친구 중에서 숙취가 너무 심해서 조퇴하는 애도 있어요. (고3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고2 때. A: 저희 학교도 보건실 가면 숙취 해소제 줘요 B: (왜 술에 관대해요?) 학교에서도 관대 하고 C: 인식 자체가 관대해요.

(고1 남) A: (술 마시는 걸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술은 인정해 줘요 B: 술은 어느 정도

(고2 여) (부모님은?) 상관 없어요. (술은 크게 터치 안 하세요?) 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음주와 흡연이 자주 동반된다는 사실이다. 음주에 관대한 현실은 결국 흡연습관을 확산 및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고1 남) A: 술 먹으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술 마시면 담배값이 두 갑 정도 기본적으로 B: (술 마실 때 줄담배를 피우는 단점이 있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 같은데요 C: (담배 맛이 좋아진다고 술 마실 때?) 돈이 깨져요 A: 맛이 좋아서. C: (술 마실 때 담배 꿀?) 무조건 있어야죠. 땡기죠

(고2 여) A: 술 마시면 더 생각이 많이 나요. (심지어 더 맛있다?) 네. B: (맛아요?) 맛아요. C: (음주할 때 담배 많이 피우세요?) 자체가 잘 안 돼요. (계속 줄 담배 피우게 되고?) 네.

(고3 여) (흡연을 끊는데 음주가 도움이 안 되네요? 동의하십니까?) 바늘과 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담배 피우면 술 마시고 싶고 술 마시면 담배 피우고 싶고 그래요. (술을 못 끊으면 담배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으면 술도 못 끊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흡연, 음주 및 게임중독을 넘어 중고생 도박중독이 심각하다

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고1 여) A: 담배나 술보다 도박을 먼저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이 서로 도박하거나 테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짜 학교 안 나오는 애들 많고 매일 학교에 있으면 우는 애들도 많아요. (풀아가고 B: 흡취하는 애들도 있어요 가방 흡취 가고 (도박에 돈 쓰려고?) 네. (이게 더 심해요?) 네. C: 토토도 많이 하고 스포츠 (저희 때랑 달라졌네요) A: 제 친구는 200만원까지 했어요. C: 여자 중에서 도박하는 사람 잘못 봤어요. 주로 남자들이.

고 찰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에 대한 FGI 결과,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바로 학생들이 성별과 학년에 상관없이 미성년임에도 담배와 술을 구입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면접에서 나왔듯, 편의점과 노래방은 각각 담배를 구입하고 술을 마시는 곳으로써 학생들에게 매우 편리하고 용이한 대표적 장소들이다. 성인임을 확인하는 곳이 많지 않을뿐더러, 검사를 하더라도 신분증 위조, 타인 신분증 도용 혹은 절도까지 공유되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담배와 술을 구할 수 있었다.

커버리지 분석에서, '불법위조'와 '흡연 사실 인지 후 부모가 넘어감', 그리고 '학생에 대한 규제 해제', 이 세 가지의 경우는 학년에 상관없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조적인 형태를 보였다. '불법 위조'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 고등학교 고학년 모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위조에 대해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긴 시간 상세히 이야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가 흡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좀 더 긴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참가자의 부모님들이 딸보다 아들에게 좀 더 관대할 것이라는 일반의 상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규제에 대한 불필요성과 해제에 대해서 중학교 남학생, 고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의견을 밝힌 반면, 해당 학년의 여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흡연 및 음주 생활이 남학생 사이에 이미 규제의 영역을 넘어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 반면, 고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은 면접 당시 졸업을 앞둔 시기이기에 규제에 대해서 이미 크게 개의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같은 학년의 여학생들은 그동안 통제받아왔던 학창 시절에 대해 떠올리며 규제의 불필요성을 좀 더 시간을 투자해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앞의 두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 안팎에서 흡연 생활에 있어 여러 규제와 시선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이다.

특히, 음주와 흡연의 주된 장소로 이용되는 노래방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쉽게 출입하여 시선의 제약이 없어 폭음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러한 현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된다. 첫째, 제도에 의한 규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학생들이 실효성이 부족한 법과 제도를 경험하면서 이를 집행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회 혹은 집단으로서의 ‘어른들’에 대한 실망 혹은 냉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법을 어긴 것은 학생들도 있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비쳤다. 피시방 흡연실에서 미성년은 흡연이 불가능함에도, 포장마차에서 미성년어 술을 주문하고 마시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대부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었다.

주류광고에 많이 노출될수록 음주 시작 연령에 영향을 주고, 이미 마시는 경우에는 빈도가 더 증가한다고 하는 광고의 영향(11)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연구 목적 중 하나였으나,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은 ‘구매용이성’을 더 많이 언급하였다. 사회환경 측면에서 양적 연구에서 조사한 담배구매용이성의 중요성은 이미 보고한 바 있다.(12) FGI 시점 직전 주류 구매용이성 관련 사회적 배경으로, 2016년 8월부터 음식, 슈퍼마켓 배달 시 주류배달이 허용되었고,(13) 코인노래방이 2015년-2017년 사이에 급증하였으며,(14)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편의점 등에서 주류구입시 성인 인증 확인률이 감소하였음을 들 수 있다. 즉 청소년들에서 ‘편의점 주류 구입 시 항상 성인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이다.(15,16)

더불어 학생들의 진술 중 ‘어른들’에 대한 실망과 냉소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금연교육의 현실이었다. 동영상상 통해 이루어지는 집단 금연교육은 학생들의 면접을 통해 확인했듯 어떠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교육을 시행하는 주체인 성인들에 대한 신뢰감을 반감시키는 역효과만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익명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들은 믿지 못했다. 익명이지만 사실대로 기입했을 경우에 ‘적발’되어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거의 모

든 학생들이 공유하였다. 신뢰의 상실이었다. 학생들을 돕기 위한 국가 주도의 교육과 조사가 학생들에게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다른 주목할 사항은 학생들의 음주에 대해서 학교와 집에서 모두 흡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관대했다는 점이다. 흡연에 대해 적발 시 경고 후 퇴학시키는 엄격한 제재와는 대조적이다. 이는 두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음주를 하는 장소가 주로 성인들의 시선을 피한 곳이기 때문에 그 통제가 없는 곳에서 과음으로 인해 위험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는, 흡연을 동반한 음주가 대다수였기에 관련한 음주문화는 흡연에 대한 엄격한 규정들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음주에 관대한 현실은 흡연에 대한 교육 및 규제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여학생이 폭음 때문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가 있었음에도, 여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와 집에서 음주에 대부분 관대하다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미성년의 음주를 법으로 금지한 현실에서 학생들이 ‘어른들’에 대한 신뢰감을 반감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신종담배, 가향담배, 과일주, 인터넷 및 SNS 등의 등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들이 흡연 및 음주에 쉽게 노출되고 이끌릴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연구결과 학생들은 그 같은 새로운 변수들에 큰 영향을 받기보다는, 방어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존처럼 ‘상식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즉, 친구와 호기심에 흡연과 음주를 시작하고, 이후 친구와 분위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습관을 지속하게 되었다. 광고나 신제품의 유혹보다도 역시 친구의 영향이 가장 중요했다. 다만, SNS에서 술을 먹는 장면, 담배를 사용하는 영상에 노출되고 있었고, 이러한 콘텐츠들이 재미있어 보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의견도 있어, 추후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도, SNS는 부모의 모니터링 역할에 의한 청소년 알코올 사용 보호 효과를 잠재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17)

이번 연구를 통해 현 상황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대상은 ‘호기심 많고 친구가 좋은’ 학생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불법적으로 담배를 팔고, 술을 파는 성인들과 실효성 없는 교육을 시행하는 성인들로 보였다. 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은 형식적 교육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아차피 할 사람은 다해요.” 학생들은 흡연 및 음주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기보다는 학생들 개개인의 ‘성향’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면접 내용 전체를 꼼

꼼히 살펴보면, 이 표현은 “어차피 범망을 피해서 다 할 수 있어 요”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그것을 표출하는 것을 잘못으로 지적하기보다는, 그 ‘호기심’이 ‘어차피 불법이지만 쉽게 실행할 수 있다’라는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규제의 취약함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음주 및 흡연 행위의 유지 및 확산과 관련하여 학생의 책임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교육과 규제에 대한 성인과 사회의 책임을 좀 더 공고히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편의점, 가게에서 미성년 술, 담배구매 금지와 같은 기존 규제정책들의 실행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주류판매업소, 모텔, 무인텔 출입 규제, 노래방 음주 규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연, 절주교육은 중2 여름방학 이전 시점에, 학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음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문화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청소년 흡연, 음주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 추세가 우려되고 있다. 일상이 회복되면서 해결되지 않은 채 얼어붙었던 코로나19 이전의 문제들이 다시 드러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문제들은 계속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요 약

연구배경: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청소년 흡연 및 음주 경험이 감소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된 추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로 액상형 및 쉐련형 전자담배 보급, 담배와 주류 제품 광고, 신제품 다양화와 같은 환경 변화의 영향이 지목되어 왔다. 당시 청소년 흡연과 음주 환경에 대해, 청소년 당사자들의 견해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흡연 및 음주 경험이 있는 만 14세-18세 남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35명을 6개 군으로 나누어 2019년 11월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녹음된 인터뷰 과정을 필사하고, 반복적으로 읽고, Nvivo 12로 코딩하여, 유사한 코드끼리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조사 결과 학생들은 미성년임에도 담배구매 시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으며, 일부는 신분증 불법 위조, 불법 거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술 구매 및 주류판매업소 출입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학생들은 학교 금연교육의 효과에 대해 회의

적이었고, 흡연에 대해 학교와 집에서 여러 통제를 받았지만, 음주에 대해서는 여학생의 경우라도 학교와 집 모두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었다. 흡연 시작 시기는 중학교가 많았으며, 특히 중학교 2학년이라는 특정 시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결론: 미성년의 술, 담배구매 및 주류판매업소 출입 규제의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금연교육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음주에 관대한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중심단어: 담배 흡연; 음주; 미성년; 담배 사용행태; 주류 사용행태; 청소년

Conflict of Interest

None.

Funding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2019-P-342000).

References

1.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Major finding from KNHANES (2018) and KYRBSS (2019). Cheongju: KDCA; 2019.
2.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Ministry of Education. Statistics of the 14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Cheongju: KDCA; 2018.
3.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Ministry of Education. Statistics of the 15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Cheongju: KDCA; 2019.
4.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Ministry of Education. Major finding from School health examination and KYRBSS (2022). Cheongju: KDCA; 2023.
5. Chung J, Cho JJ. Use of qualitative research in the field of health. J Korean Acad Fam Med. 2008; 29(8): 553-62.
6. Kim S, Kim G. The Prevalence of Smo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obacco Control Policies in South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22; 5: 6-21. DOI: 10.23062/2022.05.2.
7.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ation on WHO FCTC and recovery from the COVID-19 pandemic. The Ninth Session of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CTC. FCTC/COP9(10), 2021.
8. Joint press release from related ministries, regular briefing at the

- COVID-19 Central Disaster Response Headquarters meeting. Escape from the COVID-19 crisis and promote recovery of daily life. 2023.5.11.
9. Jackson K, Bazeley P, and Bazeley P. *Qualitative Data Analysis with NVivo*. London: Sage, 2019.
 10. Saldaña J.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ndon: Sage, 2021.
 11. Ellickson PL, Collins RL, Hambarsoomians K, McCaffrey DF. Does alcohol advertising promote adolescent drinking? Results from a longitudinal assessment. *Addiction* 2005; 100(2): 235-46.
 12. Kim YJ, Choi JY, Kim SJ, Oh KW, Kimm H. Trends in Youth Tobacco Use and The Associating Factors: Statistics from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2006-2019. *Public Health Wkly Rep.* 2020; 13(35): 2580-95.
 13. Bang HA. Mass media and alcohol; Drinking scenes in movies are rapidly increasing. *Korean Health Association Healthy Life*, 2006.
 14. 'Why did 1,600 karaoke rooms disappear last year alone?' *Korea Economic Daily*,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724921> (accessed at 16 Sep 2023).
 1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Report on the Korea Youth Media Use and Harmful Environment Survey*, 2016.
 1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Report on the Korea Youth Media Use and Harmful Environment Survey*, 2018.
 17. Ryan SM, Jorm AF, Lubman DI. Parenting factors associated with reduced adolescent alcohol use: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010; 44: 774-83.